

9월 13일은 '세계 패혈증의 날' 패혈증도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중요합니다

- 세계 패혈증의 날을 맞아, 패혈증에 대한 국민 인식 고취
- 주요 사망 원인 패혈증은 조기 진단과 치료로 사망 예방이 가능한 질환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패혈증 진료지침서 개발·배포 예정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대한중환자의학회(회장 서지영)는 9월 13일 '세계 패혈증의 날'을 맞아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 예방을 위해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세계 패혈증의 날(World Sepsis Day)은 2012년 세계패혈증연대(Global Sepsis Alliance, GSA)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이후 매년 9월 13일 패혈증의 위험성과 치료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날로 기념하고 있다.

패혈증은 감염에 의해 전신 염증반응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주요 장기의 기능부전이 빠르게 진행되는 질환으로(붙임 2 참고), 매년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패혈증 환자가 발생하며, 이 중 20%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

감염 후 생존하더라도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남게 되는 매우 치명적인 질환이어서,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다¹⁾.

세계보건기구(WHO)도 패혈증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2017년 5월 제70회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패혈증 결의안'을 채택하고 패혈증을 전 세계적인 보건 과제로 선정하며, 패혈증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를 촉구한 바 있다.

1) 임상과 실험 응급의학(OEEM), 2014 (한국인의 질병 인지도 패혈증 35%, 뇌졸중 93.1%, 급성심근경색 80%)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국내 패혈증 환자의 역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패혈증 관리 정책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내 실정에 맞는 패혈증 진료지침서 개발을 위한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3년 세계 패혈증의 날을 맞아 지난 9월 4일 대한중환자의학회 주관으로 ‘2023년 세계 패혈증의 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붙임 1 참고).

심포지엄에서는 그간의 패혈증 연구성과 발표와 함께 패혈증 진료지침서에 대한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는 패혈증 진료지침서 최종안은 올해 안에 임상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패혈증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이 ‘골든 타임(Golden time)’이 있어 빠른 인지와 초기소생술은 매우 중요하다. 서지영 대한중환자의학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현재 우리나라 패혈증 관리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패혈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패혈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패혈증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민관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패혈증 진료지침서가 개발되어 전국적인 진료 표준화를 통한 패혈증 예방과 사망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붙임> 1. 「2023년 세계 패혈증의 날」 심포지엄 주요 내용
2. 패혈증 바로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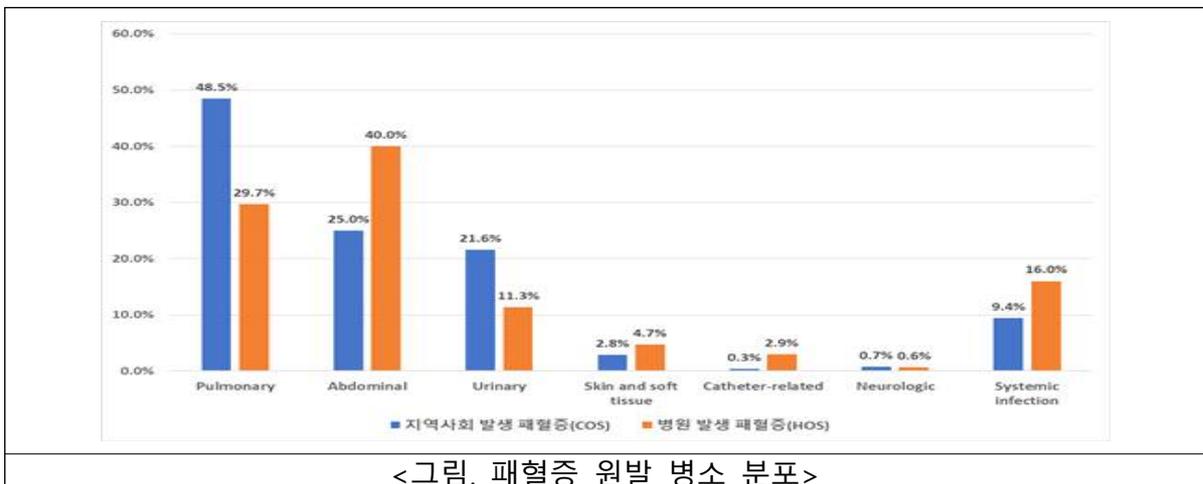
담당 부서	의료안전예방국	책임자	과 장	박숙경 (043-719-7580)
	의료감염관리과	담당자	연구관	김성남 (043-719-7594)
			연구사	최새롬 (043-719-7597)
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책임자	회장	서지영 (02-2077-1533)
		담당자	표준화이사	박성훈 (031-380-3715)

□ 심포지엄 개요

- 일시: 2023. 9. 4.(월) 17:00~19:30
- 장소: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세미나실
- 참석: 대한중환자의학회, 질병관리청,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
- 주요내용
 - 패혈증 심층조사 연구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 패혈증 진료지침서 공청회

□ 패혈증 심층조사 주요 연구결과

- (개요) 2019년부터 우리나라 패혈증 환자의 역학적 특성 및 예후를 분석하여 국내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패혈증 환자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전국의 15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 (결과) 2019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수집된 13,879건의 자료 분석 결과,
 - 응급실 방문 환자 10만명 당 613명(지역사회 발생 패혈증*), 입원 환자 10만명 당 104명(병원 발생 패혈증**)에서 패혈증이 발생함
 - * 패혈증이 확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병원 내원 시점에 확인된 패혈증
 - ** 패혈증이 확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병원 입원 중 확인된 패혈증
 - 전체 환자에서 가장 흔한 원발 감염 병소는 호흡기계로 폐렴이 전체 패혈증 환자의 45.0%를 차지하였으며, 복강 감염(27.9%)이 두 번째로 흔하였음.(그림 참조)



<그림. 패혈증 원발 병소 분포>

- 그러나, 병원 발생 패혈증은 복강 감염이 40.0%로 가장 흔하고 두 번째가 폐렴(29.7%)으로 지역사회 발생 패혈증과는 다른 분포를 보임.
- 패혈증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패혈증 묶음치료(▲젖산농도 측정, ▲혈액배양 검사시행, ▲항생제 투여, ▲수액 투여, ▲승압제 투여)는 1시간, 3시간, 6시간 이내 수행률이 각각 10.1%, 53.6%, 78.9%로 나타남
- 사망률은 지역사회 발생 패혈증에서 29.4%, 병원 발생 패혈증은 38.2%로 확인되었으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사망률을 보임

□ 패혈증 진료지침서 개발 주요 내용

- (개요) 국내 패혈증 치료 표준화 및 패혈증 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지침서 개발
 - 국제 패혈증 치료가이드라인(미국중환자의학회 및 유럽중환자의학회는 Surviving Sepsis Campaign 권고사항 주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 이외 우리나라 지역별·기관별로 치료 양상과 치료 결과에 차이를 보여 별도 지침서 개발 필요
- (방법) 국내외 지침서 및 중요 논문을 검토하였고 패혈증의 조기진단 및 치료에 초점을 맞춰 핵심질문을 선정,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통해 권고수준 등급을 결정하고 권고안 마련
- (결과) 초기 패혈증 치료 및 기존 지침에 없는 임상 현장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를 포함하여 기존에 사망률과 관련이 높다고 알려진 묶음치료 요소 등 12개의 핵심질문*을 우선 선정하였음.
 - * 젖산 청소율(lactate clearance) 측정, 수액소생술(fluid resuscitation) 시행, 평균동맥압(mean arterial pressure, MAP) 목표치, 항생제 투여 시간, 승압제 투여 시점, ECMO(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치료의 유용성, 심장초음파 시행, 노르에피네프린 및 바소프레신 사용 등에 대한 권고사항 포함
- (향후계획)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관련학협회 검토를 통해 최종안 제시 예정

※출처: 대한중환자의학회

- **(정의)** 패혈증은 감염으로 인해 타 장기까지 손상을 미치는 중증감염이다. 일단 발생하면 20~50% 사망률이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 **(원인)**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 패혈증의 원인이 된다. 원인으로서는 폐렴, 요로감염, 복막염, 뇌수막염, 봉와직염, 심내막염, 등 신체 모든 부위의 심각한 중증 감염이 패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증상)** 초기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의식 혼란 혹은 의식저하, 혈압저하에 의한 피부색 변화나 저혈압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 **(진단)** 패혈증에 특이한 진단법은 없다. 그러나 감염을 시사하는 증상과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급성장기부전 소견이 나타나면 패혈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
- **(치료)** 무엇보다도 패혈증의 원인이 되는 장기의 감염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체검사 및 각종 혈액 및 영상 검사를 통해 패혈증의 원인이 되는 신체의 감염 부위를 찾은 후 적절한 항생제를 투약하고 감염 장기에 농양(고름)이나 괴사(세포나 조직 일부가 죽은 것) 조직이 존재하거나 인공 판막 혹은 카테타가 삽입된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는 수술 및 시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감염조절과 함께 환자의 혈압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신체의 각 조직에 혈액 및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 **(예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신체 장기 기능의 장애나 쇼크 등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사망률이 매우 높다.
- **(예방법)** 패혈증은 진행속도가 빨라 발병 후 수일 내에 사망할 수 있으므로, 발열 등 감염과 함께 의식이 처지거나 호흡이 가빠지면 신속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